

# KAIT NEWS

## 미국 CES2006 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 안내



협회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미국 CES 2006 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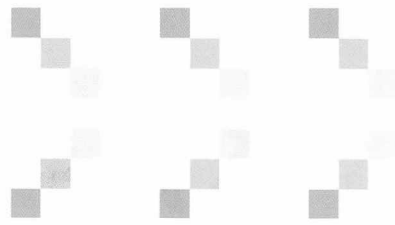
협회는 그동안 자금, 경험, 마케팅 능력의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유수의 해외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게 될 '미국 CES 2006 전시회' 한국관 참가지원도 이의 일환으로, 지원분야는 이동통신, 유무선 통신, 초고속인터넷, 방송위성, 디지털콘텐츠, SW 정보보호 등 IT산업 전 분야이며, 지원 사항은 전시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1부스 기준), 홍보마케팅활동 지원(바이어 발굴 등), 공동홍보물 제작, 제품운송비 편도 지원 등이다.

신청대상은 정보통신부 선정 유망 중소기업정보통신업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정보통신업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해외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o 참가신청 및 문의 : 해외사업팀 (02-580-0583)



## LBS사업자 허가신고 및 FTTH 홍보설명회 개최



협회는 정보통신부와 각 지방체신청 주최로 지난 7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역(13일), 광주전남지역(14일), 제주지역(15일), 전주전북지역(22일)에서 LBS 및 FTTH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LBS사업자 허가·신고 절차 및 FTTH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련사업자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신규산업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과 김남철 사무관이 설명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BS연구팀 김주완 팀장이 'LBS기술 및 산업현황' 등을 소개했다. 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한국위치정보(주) 등 주요 LBS사업자들이 2005년 LBS사업전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는 특히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각 지역설명회에 참석한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간 궁금했던 내용들을 해소했다는 평이다. 주요 질문으로는 ▲첫째, 현재 사업 중이거나, 신규(진출 예정)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이 이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 ▲둘째, 이 법률에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해당사업의 성격상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셋째, 허가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 및 사업계획

# KAIT NEWS

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문이었다. 이러한 질문들은 지난 1월 27일에 공포된 새 법률에 대해서 예비 사업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순회 설명회에서는 각 지방 체신청과 한국 정보통신공사 협회의 도움을 받아 차세대 U-Korea를 위한 기반사업인 FTTH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FTTH산업 활성화 전략 및 기술 동향, 구내통신망 광케이블 표준구축공법에 대한 홍보설명회도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FTTH산업의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방송인터넷이 대통합되는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 서비스 제공에 따른 통합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FTTH망 보급의 당위성 등이 홍보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전산원 남동규 선임연구원이 'FTTH 구축동향 및 활성화'에 대해 발제했고, LS전선(주)의 한관희 박사와 (주)텔리언의 김경수 이사가 'AON(Active Optical Network), PON(Passive Optical Network)'에 대한 기술동향을 설명했다. 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위원회 서태석 의장은 현재 추진 중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대해 소개했으며, LS전선(주) 조한대 박사는 통신건설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구내 통신망 광케이블 표준구축공법'에 대해 설명해 지역 FTTH관련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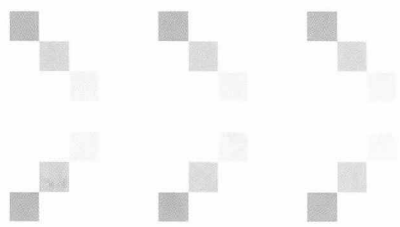
○ 문의 : 정보화기획팀(02-580-0532)

## 삼성물산, 중앙전파관리소 등 10개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선정

협회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에 다음커뮤니케이션, 삼성물산(건설부문) 등 총 10개 사이트가 최종심의를 통과해, 지난 7월 21일 협회 3층 회의실에서 인증서를 수여했다.

금번 신규 인증심사에는 총 15개 사이트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 테스트, 서류심사 및 사실심사, CEO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명선)의 최종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신규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를 취득한 업체(기관)는 기업금융연구원(대표 이응렬)의 예스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의 다음,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이상대)의 래미안, 이제너두(대표 김정호)의 BeneCafe, 종로유학원(대표 이규현), 중앙전파관리소(대표 이기주), 한국건강관리협회(대표 이순형), 한



국사이버대학교(대표 송자)의 KCU한국사이버대학교 등 9개 사이트이며, 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시스템 보안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는 중앙전파관리소(대표 이기주) 1개 사이트가 인증심사에 합격해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한편 심사결과에서는, ▲ 사내 개인정보보호 규정 구비 미흡 ▲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 교육 실시 미흡 ▲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 발송 시 수신거부 방법 및 수신동의 일시 표기 미흡 ▲ DB에 대한 개인별/등급별 접근제한 방침 마련 미비 ▲ 만14세 미만자의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 미흡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분쟁발생시 행정심판절차 안내 등 피해구제방법 안내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회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 로고의 대외 인지도 및 이용자 선호도가 높지 못하다는 인증업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8일 동안 실시된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인증업체(37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정된 새로운 i-Safe마크를 선보였다.

새로운 i-Safe마크는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보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어 제작됐으며, 디자인 또한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3차원적인 시각효과를 주었다.

새로운 i-Safe마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마크 개정을 통해 인터넷이용자에게는 안전한 웹사이트 사용을 권장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인증취득을 통한 자율적인 고객 개인정보보호 노력의 계기로 삼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문의 : 정보화기획팀(02-580-0533)

# KAIT NEWS

## 우리 문화콘텐츠, 세계와 함께합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한국IT리더스포럼 7월 조찬회가 지난 7월 12일 오전 7시 30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이 "우리 문화콘텐츠, 세계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했다.

서 원장은 강연에서 "우리나라를 창의적 문화콘텐츠 산업 강국으로 실현하고 문화콘텐츠를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2010년 국내 매출 94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4%, 해외수출액 60억 달러, 고용96만 명의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 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국가 GDP 성장률 4.6%보다 콘텐츠 분야의 성장률이 9.2%로 높았으며 고용도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전체 고용이 2.16% 성장한 반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7.8%를 달성했다"고 말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마케팅 능력부족, 저작권 보호 시스템 등이 부족해 산업이 제대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화콘텐츠를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콘텐츠 산업은 원부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종이와 연필만으로 1억 달러의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덕환 한국IDC사장은 "우리 산업구조가 생산력 위주로 전개돼 왔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문의 : 한국IT리더스포럼사무국(02-580-0534)